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삶의 길을 내놓고, 시간을 정해 놓고 제 시간에 맞춰 살면, 피곤하지 않고 편하다.
2. 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되는 대로 살면, 생각도 삶도 쫓기게 되고 복잡하다.
3. 시간을 정해 놓고 지키면서 살면, 미리미리 시간을 알고 조종하면서 사니 시간을 아껴 쓰게 된다.
4. 하나님과 성령님은 시간이다.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되어 쓰면, 시간을 아껴 쓰게 된다.
5. 시간을 육에 속해 쓰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을 쓴 표도 보통으로 나고, 얻는 것도 별로 없다.
6. 사람이 70년을 살아도 시간을 꼭 쓸 곳에만 쓰지 않고 사니, 실상은 40년을 산만큼 밖에 시간을 못 쓴다. 인생의 반 정도만 귀하게 쓰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데 시간을 쓰고 산 것이다.
7. 하루를 살면서 귀한 시간을 꼭 쓸 곳에만 쓰고 살면, 전체 시간의 3분의 1정도를 더 쓰게 된다.
8. 필요한 시간만 화끈하게 쓰고 산다면, 다른 프로그램을 한두 개 더 행하여 유익을 얻게 된다.

9. 시간을 미련하고 무지하게 쓰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다.
10. 시간은 돈이요, 생명이다. 사람이 시간이 없으면 성공도 못 하고, 어떤 귀한 것을 얻었어도 쓰고 누리지 못한다.
11. 시간을 필요한 데만 쓰고 살면, 많은 것을 얻고 살게 되니 오래 사는 격이 된다.
12. 시간을 필요 없는 데 쓰고, 자는 데 쓰고, 노는 데 쓰고, 자기 편한 데 쓰고 살면, 일생 동안 특별하게 남겨 놓는 것이 없고, 개인적인 삶을 살고 끝나게 된다.
13. 시간을 영원한 미래를 위해 써야, 그 영이 빛나는 영이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영원토록 살게 된다.